

조사보고서

2018년 1/4분기 전북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8. 1. 4

목 차

I.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기간	2
3. 조사실시 기간	2
4. 조사대상	2
5. 조사방법	2
6. 조사항목	2
7. 집계방법	2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2
II. 2018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3
1. 종합전망	3
가. 개황	3
나. 응답업체 분포	4
다. 항목별 경기전망	5
라. 업종별 경기전망	6
마. 지역별 경기전망	6
2. 내년도 경제흐름 및 경영리스크	7
가. 대내리스크	7
나. 대외리스크	8

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18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17년 4/4분기(10, 11, 12월) - 실적기간
- 2018년 1/4분기(1, 2, 3월) -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17년 12월 1일 ~ 2017년 12월 8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17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 방문 조사하였으며, 조사표 기입은 간부급에서 기록토록 함

6. 조사항목

- 전반적인 경기실적 및 전망
- 업종별·매출유형별·지역별 경기전망
-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요인
- 정부정책과제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라북도 제조업체의 주요업종인 9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Ⅱ. 2018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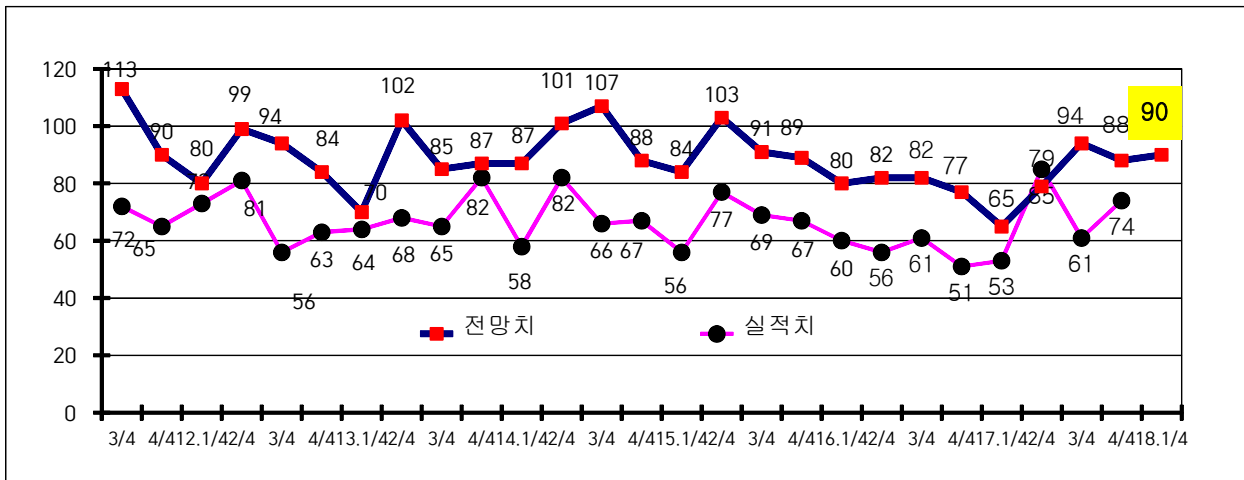
1. 종합전망

가. 개 황

경기회복의 훈풍이 지역경제까지 미치지 못해 1/4분기 BSI '90'

- 지난해 한국 경제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세계경제 회복세에 맞물려 수출활성화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반면, 전라북도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들의 공장가동 중단과 파산, 잇따른 철수 소식 등으로 험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도 이러한 여파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17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8년 1/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90'로 집계되어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4/4분기 실적지수는 '74'로 나타나 지난분기 실적대비(BSI 61) 호전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망 치	80	99	94	85	70	102	85	87	87	101	107	88	84	103	91	89	80	82	82	77	65	79	94	88	90
실적 치	73	81	56	63	64	68	65	82	58	82	66	67	56	77	69	67	60	56	61	51	53	85	61	74	

- 당분간 세계경기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훈풍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경제의 특성상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지역기업들은 올해 투자 및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각종 규제 완화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기업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의 분포를 보면 1/4분기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23.1%(27개사),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33.3%(39개사)로 전분기 대비 호전 응답 증가율이 악화 응답률 증가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43.6%(51개사)로 지난분기 대비 감소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17년 4/4분기 전망	2018년 1/4분기 전망
호 전	20.0%(22개사)	23.1%(27개)
비 슷	48.2%(53개사)	43.6%(51개)
악 화	31.8%(35개사)	33.3%(39개)
계	100.0%(110개사)	100.0%(117개)

※ ()는 응답업체 수

다. 항목별 경기전망

-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수출업체의 매출(104)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기준치 '100'을 하회함

【 2018년 1/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매출(내수)	매출(수출)	영업이익(내수)	영업이익(수출)	자금조달
BSI	94	104	93	95	83

- 1/4분기 우리 제조기업들은 세계경기회복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에 있어 내수 시장에 비해 수출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출업체의 매출 전망(104)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업체의 매출(94)과 영업이익(93), 수출업체의 영업이익(95)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돌며 부진을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금조달여건(83)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재무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의 경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

라. 업종별 경기전망

- 1/4분기 도내 제조업 가운데 음식료(111), 종이나무(105) 업종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 조사되었으나, 이외 업종의 경우 전분기 대비 부정적 의견을 보임
- 특히, 지역건설업과 연관이 많은 비금속광물(55)이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섬유 의복(80), 전기전자(82), 화학(94), 자동차(95), 금속기계(97) 업종도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1/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나무	화 학	비금속광물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기 타
BSI	111 (79)	80 (83)	105 (100)	94 (63)	55 (56)	97 (123)	82 (140)	95 (81)	98 (25)

※ ()는 지난 4/4분기 BSI 전망 수치

마. 지역별 경기전망

- 2018년 1/4분기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북서남지역(100)을 제외한 전주, 익산, 군산 모두 BSI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익산지역(70)의 경우는 지역의 대표기업인 넥솔론이 파산하고, 인구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등 지역발전의 요소들이 하나둘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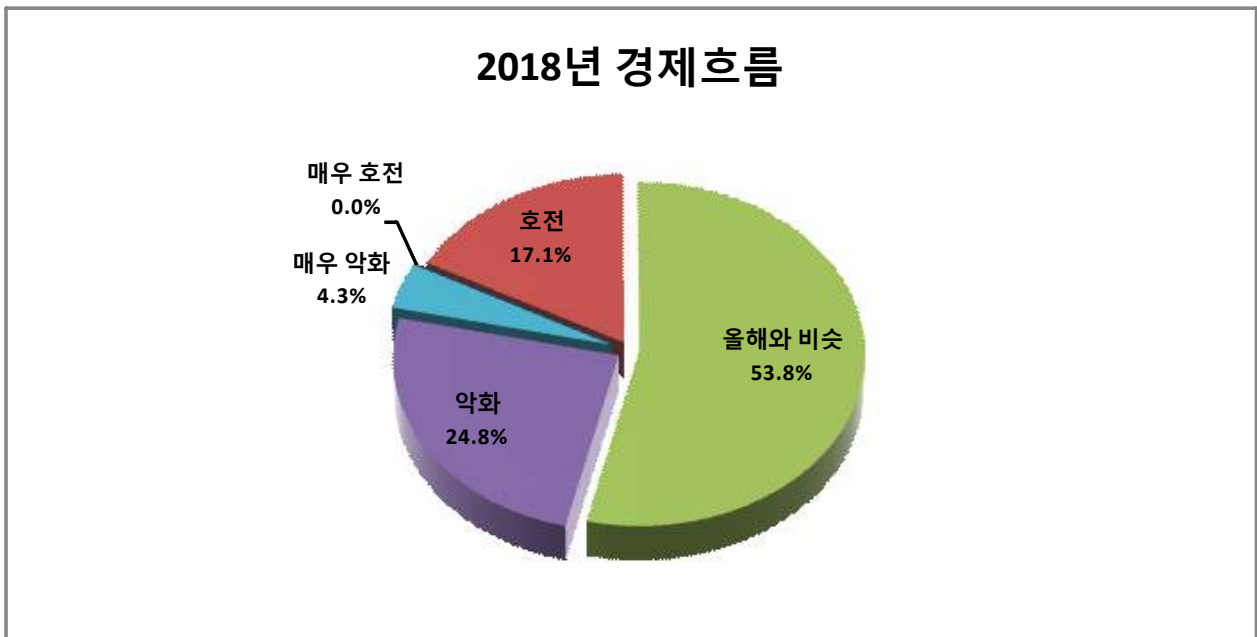
【 2018년 1/4분기 지역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항 목 \ 규모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체 감 경 기	94	70	92	100
매 출 (내 수)	94	74	105	104
매 출 (수 출)	117	89	93	95
영업이익(내수)	94	74	95	108
영업이익(수출)	105	83	71	98
자 금 조 달	92	70	70	84

2. 내년도 경제흐름 및 경영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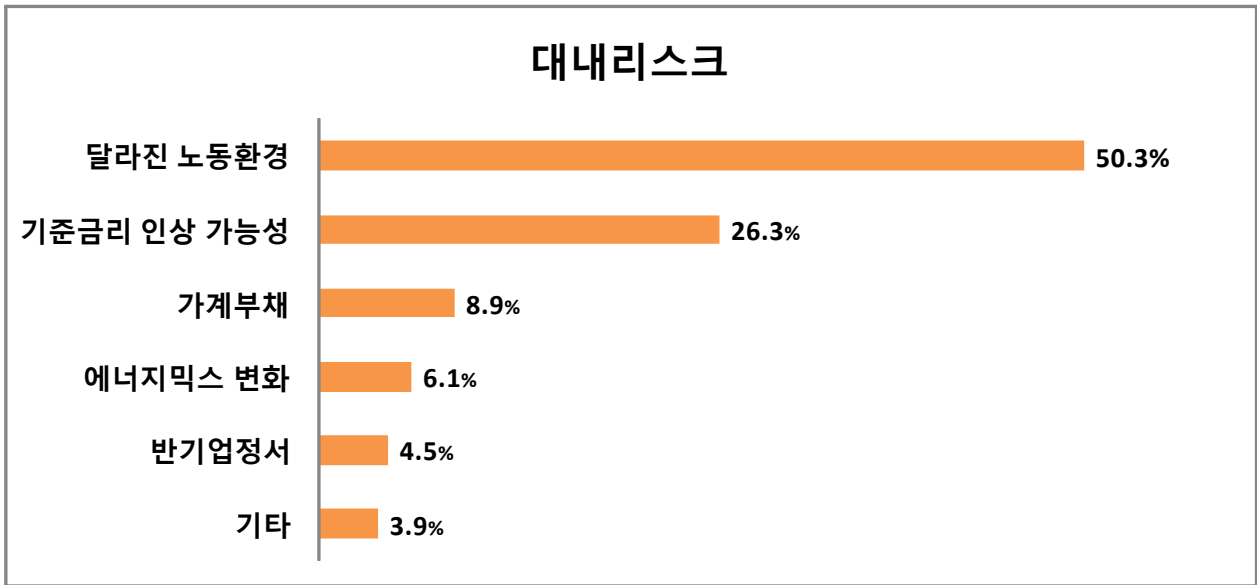
□ 다가오는 2018년 경제 흐름에 대해 우리지역 기업들은 설문 응답에 참여한 총 117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인 63개(53.8%)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뒤를 이어 29개(24.8%) 업체가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매우 악화될 것’이라 응답한 업체는 5개(4.3%)로 내년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업체는 전체의 17.1%(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가. 대내리스크

□ 내년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리스크로 우리지역 기업들은 ‘달라지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처 방법(50.3%)’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큰 대내리스크로 꼽은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26.3%)’이 뒤를 잇는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됨

□ 나머지 응답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계부채(8.9%)’, ‘에너지믹스 변화(6.1%)’, ‘반기업정서(4.5%)’가 뒤를 이었음



나. 대외리스크

- 내년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30.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올해에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한한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19.4%)’와 ‘북핵 리스크(18.3%)’, ‘통상마찰(15.6%)’, ‘중국의 사드보복(13.3%)’문제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상함

